〔에필로그 : 詩가 있는 캠퍼스(이중석 自作詩)〕

이 가을에

이 가을, 저 창공(蒼空)을 보고
당신의 드높은 이상을 알았습니다.

붉게 물든 단풍을 보고
당신의 열정도 알았습니다.

쓸쓸히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
당신의 고뇌를 이해합니다.

저 거친 광야를 보고
당신의 도전을 생각합니다.